

# 동화사-달성군, 대전사 중창 손 잡았다

### 폐사지 복원에 사찰·지자체 나서 동화사, 중창 비용 및 향후 관리 달성군, 비용 인허가 및 행정지원 일연 스님 22년간 주석한 곳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했던 신라고찰이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 폐사된 대전사의 중창불사가 시작된다.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성문)와 대구시 달성군청(군수 김문오)이 1200년 전 신라시대 대전사 중창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1월 20일 달성군청 상화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동화사는 중창 소요비용 50억원과 시공 후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달성군청은 국고보조금 및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동화사와 달성군청은 대전사를 역사성과 전통성을 갖춘 국보급 명품 사찰로 중창한다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대전사는 1200년 전 신라시대 헌덕왕대 창건돼 일제 강점기에 강제 폐사된 사찰로 알려졌다. 특히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고려 고종 4년(1227년)에 초입 주지로 22년간 주석한 곳으로 유명하다. 일연 스님은 대전사에서 참선에 집중하고,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했다.

대전사지에 현재 남아 있는 삼층석탑은

1988년 복원됐고, 1994년 대구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영남문화재연구원 2002년 대전사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펼친 결과 6개동 72평에서 유구 37점이 수습됐다.

동화사와 달성군청은 이런 역사적 특성을 고려해 대전사를 고려시대 건축양식으로 중창할 계획이다. 또한 폐사 당시 원형을 최대한 복원하면서 대웅전 요사채 종무소 산신각 등을 2013년까지 건립해 개산식을 가질 예정이다.

대전사지가 있는 비슬산(琵琶山)은 달성군을 대표하는 산으로 주민들이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지역 명소다. 팔공산이 대구시를 대표하며 많은 대구시민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비슬산은 달성군민들의 자랑인 것이다.

비슬산은 불교에서 수용된 고대 인도 힌두 신으로 비슈누(VISNU)를 한자어로 음역한 琵琶瑟에서 유래된 말이며, 거문고를 뜻한다는 설이 있으며, 특히, 임금왕자가 네 개나 있어, 임금 4명이 배출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비슬산 대전사지 인근에는 참꽃굴라지가 100만㎡(30여 만평) 규모로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달성군은 1997년부터 매년 봄 이곳에서 '참꽃 축제'를 열고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성장·발전시켜 왔다. 분홍빛 참꽃을 보기 위해 봄이면 달성군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참꽃 축제'는 참꽃의 아름다움과 함께 대전사지의 역사와 문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과 달성군 김문오 군수가 양해각서를 들고 환히 웃고 있다.

화를 함께 감상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달성군은 '참꽃 축제'로 유명해진 비슬산의 대전사지를 복원해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탄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성군은 2010년부터 '대전사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추진해 왔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이번에 중창하는 대전사는 일개의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 테크노폴리스의 최첨단 과학 기술과 강정보, 달성보의 수변 경관, 약산온천 관광호텔의 휴양시설, 비슬산의 불교 문화유산 및 비슬산 참꽃 축제 등과 연

계해 영남의 대표적 관광·문화·예술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도 "대전사는 일제에 의해 강제 폐사된 민족 수난사의 일부분으로 민족의 정기를 다시 세우고 국운 융성을 기원하는 사업으로 반드시 국보급의 명품 사찰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경일대학교 장석하 교수는 "이번에 중창하는 대전사는 전국 최초로 불교계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 폐사지 원형을 존하는 사찰로 중창하게 된 경우다. 조계종 본산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대전사(大見寺)는...

##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구상한 곳으로 유명



비슬산 대전사지에 남아있는 삼층석탑

신라 천년 고찰, 임란때 전소

1900년 중창...1917년 일제 폐사

1988년 대전사지 삼층석탑 복원

대구 달성군 비슬산 해발 1000m 지점에는 절벽 끝에 세워진 삼층석탑과 주춧돌만 남아 있는 넓은 공터가 있다. <삼국유사>를 저술한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22년간 주석한 대전사터이다.

대전사 원래 명칭은 보당암(寶幢庵)으로 신라 흥덕왕 때인 810년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이다. 사찰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으나 <태종실록> 태종 16년(1416년) 2월 조와 <세종실록> 세종5년(1423년) 11월 조에 대전사의 장육관음석상이 땅을 흘렀다고 조정에 보고된 기록이 남아 있다.

구전에 따르면 당나라 문종(826~840)이 절을 지을 곳을 찾던 중 세수를 하려고 떠놓은 물에 아름다운 경관이 나타났다. 그곳이 절을 지을 곳이라 생각한 문종은 사신을 파견해 물속에 비친 곳을 찾게 했다. 중국에서 찾지 못하자 신라로 사람을 보냈

고, 그렇게 찾아낸 곳이 보당암이었다. 이처럼 '대국에서 보였던 절터'라고 해 대전사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대전사는 고려 고종 4년(1227년) 일연 스님이 22세 나이로 승과 선불장에 장원급제해 주지로 부임한 절이다. 스님은 이곳에서 22년간 머무르면서 간화선에 몰두했고, <삼국유사>를 구상한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전소됐다가 1900년 중창했으나 1909년 다시 폐허화됐다. 1912년 동화사 말사로 편입돼 변경하다가 1917년 일제가 강제 폐사 시켰다.

사지는 절벽에 평탄지를 닦아 사찰을 조성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단 석축렬과 대좌로 추정되는 연화대석이 남아 있다. 2004년 영남문화재연구원 시굴조사 결과 추정 건물지 6동, 적심 등을 확인했다. 대전사지 삼층석탑(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42호)은 높은 비랑 끝에 건립돼 있으며 이층기間に 3층 탑신을 올렸다. 자연암반을 지대석으로 삼고 있으며 통일 신라 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8년에 사지 내에 무너져 있던 것을 복원했다.

주성원 기자 jsw@hyunbul.com

##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현장'

### '폐사지' 왜 중요한가 5400곳 중 국가사적 35곳

폐사지는 불교를 떠나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불자가 아닌 일반인들 중에서도 폐사지 답사와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가 2010년 12월 발간한 <한국사지총람>에 따르면 전국의 사지는 5393곳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0~2014년까지 전국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조사 중이다. 이 중에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폐사지가 35곳, 시도 기념물이 61곳, 문화재 자료가 7곳이다.

국가 사적으로 지정된 곳 중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이 경상북도 경주의 황룡사지이다. 사적 제6호로 지정된 황룡사지는 진흥왕 14년(553년)에 궁궐을 짓다가 황룡이 나타나 절로 고쳐 짓기 시작해 17년 만에 완성됐다. 전해진다. 진평왕 6년(584년) 장육존상을 봉안하기 위한 금당을 짓고, 진덕여왕 12년(643년)에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자장율사의 권유로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구층목탑을 짓기 시작했으며 백제 장인 아비지에 의해 645년 완공됐다. 황룡사는 93년에 걸친 국가사업으로 조성된 큰 절이었으며 황룡사 구층목탑과 장육존상은 신라의 삼보였다. 고려 고종 25년(1238년)에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없어지고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 1976년 발굴조사가 시작됐으며 금동불입상 등을 비롯한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금당에 들어가 그린 벽화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사적 제31호이며 국보 제112호로 지정된 감은사지도 경주 시 양북면에 위치하고 있다. 감은사는 신라 30대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한 뒤 왜구의 침략을 막고자 세우기 시작해 신문왕 2년(682년)에 완성했다. 또한 문무왕의 유지를 받들어 장사한 곳이 절 부근의 대왕암이며,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 이름을 '감은사'라 했다. 감은사는 황룡사, 사천왕사와 함께 호국사찰로 알려져 있다. 현재 국보로 지정된 석탑 2기와 금당지의 유적이 남아 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를 통해 강당, 금당, 중문이 일직선상에 배치되고 쌍탑이 금당 앞에 배치되는 통일신라 전형의 가람배치를 밝혀냈다. 이는 삼국통일 직후 조성된 쌍탑가람의 최초의 예로 꼽힌다. 수확여행의 단골코스 중 하나인 경주 보문관광단지에는 사적 제390호인 보문동 사지를 만날 수 있다. 창건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문왕 11년(871년) 이전

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에 '普門寺' 명문 와편이 확인돼 사명이 밝혀졌다. 서탑지와 금당지가 육안으로도 확인되며 쌍탑이 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석등, 초석, 탑지 등이 남아 있고 통일신라시대의 화강암 석조가 있다.

사적 제168호 원주 거둔사지는 사찰의 창건과 관련된 기록은 전하지 않지만 선조제 사찰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1세기 초엽 고려 현종의 왕사였던 지종(智宗)이 거둔사에서 입적하고 국사 칭호를 추증하면서 이곳에 탑과 비를 세웠다. 중앙부에 자리잡은 금당기단의 남쪽에 보물 제750호로 지정된 신라 전형양식인 삼층석탑이 거의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사지의 동남쪽 끝에는 보물 제78호로 지정된 원공국사탑비가 잔존한다. 사지 북쪽 끝에는 보물 제190호 원공국사승묘탑의 유적이 있다. 나팔여초의 절터로는 보기 드문 일타식 가람이 특징적이며 고

중요한 역사 자료·문화 산실

조사된 사지만 5393곳

경주 황룡사지 등 국가 사적 많아

현제도 폐사지 현황 조사 중

러시대 청자, 막새기와 백자편 등이 출토됐다. 특히 고려청자는 압출양각기법의 양질 청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려 전기 거둔사의 사격과 사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적 제259호 선원사지는 인천시 강화군에 위치하고 있다. 선원사는 강도(江都)시대의 실력자 최우(崔瑀)의 원찰로 한때 그 규모를 자랑했던 거찰로 <고려사> 등에 자주 등장한다.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고려는 도읍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 궁궐을 비롯한 여러 건물뿐만 아니라 대웅전 등을 위한 국민 총화의 일환으로 선원사를 세웠는데, 당시 송광사와 함께 2대 사찰로 손꼽힐 정도로 중요한 사찰이었다. 사찰에는 '감은사'로 만든 불상 50기가 모셔져 있었다고 한다. 동국대 조사단에 의해 1996년~2001년까지 발굴됐으며 벽돌, 기와, 치미 등 다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충북 청주시에는 사적 제315호 흥덕사지가 있다. 흥덕사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인쇄물인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1377년)을 찍어낸 사찰이다. 흥덕사는 조선시대 지리지에는 나타나지 않아 조선시대에 들어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5년 발굴조사에서는 금당지, 서회랑지, 강당지, 부속건물지들이 확인됐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1600년의 역사성을 지닌 한국 전통 불교 의식은 한국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전개하는 見機而作形 의식이 정착되어 점차 그 목적을 상실하고 있고 올바른 어산 법맥을 통한 스승의 가르침 없이 행해지는 수많은 소리와 작업이 존재하여 전통 불교 의식 전수에 장애를 주고 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원명스님을 중심으로 전통 불교 의례를 보존·전승하고 올바른 水陸齋儀를 재현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여법한 불전 예식 봉행과 제 의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시대적 요구와 종단 5대 결사에 부응하여 의식·의례의 한글화 작업 및 재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 교수사

- 학장 : 동주원명스님 (어산·수륙작법·수륙무차평등재·천지명양수륙재)
  - 대한불교 조계종 어산어장
  - 재단법인 보리동산 이사장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조교
- 학감 : 정오스님 (상주권공·수륙무차평등재·한글의식)
  -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 대한불교 조계종 한글의례실무위원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교수 : 현준스님 (불교무용)
  - 대한불교 조계종 행자교육원 교수사
  - 대한불교 조계종 구족계단 예식교수사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교수 : 도경스님 (불교무용)
  -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
  - 동방대학원대학 불교문화전공 박사과정
- 외래교수 : 헤일명조스님 (의식장단·의식이론·한글의식·수륙재연구)
  -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 석사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전공 철학박사
  - 불전법연연구소 소장

## 교육내용

학 과 목	교육 내 용
상주권공 1년차	할합·등계·삼정례·합장계·개계·현좌계·참회계·가사계·축원·회향성·
상주권공 2년차	시연·대령·관육·신중작법·사식
불교의식장단 1년차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곳거리·법고·동당성·천수나라
불교의식장단 2년차	사다라니·관육·내림계·회의제·제의식 공통 반주·무용 공통 반주
불교무용 1년차	복창계·도량계·요청·관육·다계·천수나라
불교무용 2년차	사다라니·향회계·괴경·명발·내림계·회심곡
불교의식연구 1년차	현행 불교 의식의 전개·전도재·영산재·예수재·수륙재·상단시연·중단시연·하단시연
불교의식연구 2년차	풍백우사단작법·천창가림신작법·당산천왕단작법·당산용왕단작법·예적단작법·범왕단작법·제식단작법·사현왕단작법·성왕단작법
한글불교의식 1년차	예불의례·반야심경·발원문·도량성·중성·천수경
한글불교의식 2년차	시연·대령·관육·신중작법·삼보통성·관음정·지장정·불공·사식
수륙작법 1년차	수륙무차평등재·천지명양수륙재
수륙작법 2년차	자기문·지반문·예수작법·영산작법

## 모집인원 및 편제

과 정	모 집 인 원	편 제
전문 과정	00명	2년제
연구 과정	00명	2년제
기능 과정		1년제

## 전형일정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1. 12. 26(월) ~ 2012. 2. 25(토) 17:00	· 불교 교처 · 인터넷 교부 및 접수
면 점 (서류전형 합격자)	2012. 2. 27(월) 14:00	· 불교 강당 및 강의실
합격자 발표	2012. 3. 2(금) 14:00	· 불교 홈페이지 · 개별통지
합격자 등록	2012. 3. 2(금) ~ 2012. 3. 4(일) 17:00	· 남부계좌: 전통의례전승원 (실명입학 후 연락요망)
입학식	2012. 3. 6(화) 14:00	

## 지원자격

1. 전문과정의 입학자격은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비구, 비구니로 한다. ※ 인사스님을 시봉할 목적으로 기본 교육 과정에 입학하지 않은 사미, 사미니의 경우 한 학기의 청강을 허락할 수 있다.

2. 연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본 학교 전문과정 졸업자
  - ② 타학교 불교의식 과정 졸업자
  - ③ 불교 의식 및 문화 관련 학과 사회 대학 졸업자
3. 기능과정의 입학은 본 학교 연구과정 졸업자에 한한다. (단, 개방과정 신설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재가별자의 수고를 허용할 수 있다.)
4. 타 종단 스님도 청강할 수 있으며 수료 후 학생스님의 수료증을 수여함.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입학 원서
2. 승적 증명서
3. 수험 이력서
4. 자기 소개서
5. 이전 과정 졸업증명서
6. 추천서(기본교육과정 학장의 추천서)
7. 연구과정 지원자의 경우, 불교 의식 관련 교육 기관의 졸업 증명서

## 전형료 60,000원

## 특 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문과정 22학점, 연구과정 24학점으로 하며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먼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 자와 졸업 평가(논문 혹은 고사)에 합격한 자로 한정한다.

1.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장이 발급하는 학위등록번호가 기재된 졸업장을 학교장의 명의로 수여한다.
2. 연구과정 졸업자는 실기(논문) 평가 후 교무회의를 거쳐 어산어장스님이 이수증을 수여하고 어산법맥을 전수(전강)한다.
3. 재학 중 성적우수자에게는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4. 졸업자에게 대한불교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